

육아정책 소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보건복지부는 8월 17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영유아(만0~5세)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둘째,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 등 금지된다.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강화된다.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8.17일 이후부터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 정원을 조정하여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넷째, 보육교사 실습 기준 내실화를 강화하였다.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다섯째, 원장,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합리화하였다.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등 영유아 안전·건강 등과는 관련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등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선정 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아기부터 지·덕·체를 고루 갖춘 미래의 건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운영한다고 8월 21일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정부 합동으로 만 5세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한다는 계획 발표(‘11. 5. 2) 이후, 금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되는 「5세 누리과정(공통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성교육을 보다 실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공모·운영’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누리과정부터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은 바른 세 살 버릇 형성을 위한 기본생활습관을 강조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내용과 신체활동에 참여 내용을 강화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유아기의 사소한 따돌림 등으로부터 시작되어 초·중·고교에서의 폭력성으로 습관화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280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운영하는 동 사업에는 평소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운영해 온 총 880여개의 유치원(400개)과 어린이집(480여개)이 참여, 3.2:1의 경쟁률을 보여 누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선정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성교육을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특히, 우수기관 심사는 인성교육 실천내용이 70%, 우수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운영계획이 30%로 이루어져, 선정된 기관은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이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시·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개 기관 당 평균 650만원 내외에서 3년 동안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최우수 기관에는 공개수업 등 지역 내 시범운영을 위한 추가 비용이 더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이전에도 인성교육을 핵심 내용으로 강조해 왔지만, 누리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이 보다 실천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 3월부터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되어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공모·운영사업’을 통한 우수 사례가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전파되어 인성교육의 질이 한층 제고되리라 기대하고 있다.